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전봉준장군 동상
여름맞이 분수 가동

고창군 중심에 우뚝 선 전봉준장군동상이 분수와 함께 화려하고 시원한 여름을 맞는다.

8일 고창군은 군청 앞 회전교 차로 인근 전봉준장군 동상 소공원을 내 분수가 이번주부터 9월까지 운영된다.

분수는 무더운 여름 전봉준장군 동상을 찾는 방문객과 이곳을 오가는 군민 모두에게 시원함을 더해준다.

특히 저녁이 되면 특수 조명이 분수와 동상을 비추면서 도시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줄 예정이다. 분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동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더위에 지친 군민들이 이 곳을 지나는 동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 길 바쁘다"며 "여름 저녁 이분수공원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소소한 공연도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홈페이지 담당자
이름 비공개 전환

부안군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공무원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자의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 내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직원 배치도에 사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홈페이지에 지위, 업무,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는 남겨 민원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가예산 확보 현안해결 협력”

고창군-민주 지역위,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이후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정책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민선8기 군정의 주춧돌을 쌓은 지난해 주요성과(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대성공, 삼성전자 유치, 유네스코 세계의 보물 7개 보유, 농촌협약·농촌관광

스타마을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과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를 돌아보며 축하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예산의 경우 국·도정 핵심과제를 자세히 분석해 논리를 보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부처단계부터 국회단계까지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고창군 최대 현안인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관련,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만큼,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경쟁성이나 국토균형발전 논리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고창군에서 계획 중인 민간투자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고창군과 상호협력하고 지역의 심부름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 국가 예산인 1,91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역 안팎으로 힘을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고창군 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호남고 통학로 지중화사업 본격 추진

정주교~호남고 구간 지중화로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 조성

정읍시가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호남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도심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호남고등학교 통학로 450m 구간(고을시장 인근 정주교부터 호남고)을 시작으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도로변에 설치돼 도심 공간을 어지럽히던 각종 가공전선과 통신선을 없애고, 이를 지중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

해 호남고등학교 통학로인 초산로 지역의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초산로 지중화 공사에는 시와 한국전력공사 및 케이티,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드림라인 통신사가 참여한다.

시는 도로굴착공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 차량 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가정의 달 연휴기간 이후인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지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 주·정차 및 차선 일부가 통제되고 공사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정상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통행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중화 공사로 인해 교통체계 변화와 통행 불편 등이 예상되지만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제1차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8일 비원에서 제1차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시장)는 정읍의 과학기술진흥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지역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시의회 의원, 과학기술 관련 교수, 과학기술 선도 기업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첨단과학관'의 기능 중복 해소 및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운영(폐관)방안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역점 추진

하고 있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의 진행 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첨단과학관의 폐관과 지역 내 타 과학관과의 관계 설정에 동의하고, 폐관 이후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우선적으로 행정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시의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의 협업으로 정읍에 설치하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가정의달 맞이 카네이션 전달

부안군보건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보건소 방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200여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했다. 보건소에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하여 더욱 뜻깊은어버이날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카네이션 화분을 받은 한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데 예쁜 꽃을 받으니 기분이 좋고 직원들의 격려를 받아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정읍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이학수 시장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정읍시는 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운 시의회 의장, 이호춘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9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했다.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효 실천 유공자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이학수 시장의 기념사와 참석자의 축사가 이어졌다. 부대행사에서는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어르신 부부 3쌍의 금혼식이 진행됐다. 이후 부부&우정가요제를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흥겹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효 문화와 부모 공경의 마음이 퇴색되어 가지만, 이 지리에 계신 부모님들의 지극한 자식 사랑과 부모 공경으로 꾸준하게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기념행사의 자리를 빌려 정읍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읍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어버이날 행사가 개최됐다. 신대인읍에 위치한 북부노인복지관은 '효(孝) 나눔잔치'를 진행해 6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문화공연과 체험, 식사 등을 제공했고, 칠보면 소재 삼진강댐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사랑해(孝)' 행사로 400여명의 어르신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공립 고창군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문열어

고창군이 8일 사회복지시설지구내 고창군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을 문 열고, 지역 치매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개소식에선 어버이날을 맞아 입소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 증정과 축사, 현판제막식, 시설 관람순으로 진행됐다. 치매전담실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지구내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333㎡)에 정원 16인(3인실 4개, 2인실 2개) 규모로 건립됐다. 공동거실(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과 욕조공간에서 치매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시설 운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 김정호)과 2028년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